

캠핑카 증가에 주차 분쟁도 는다

아파트 주차 민원 증가·허용 여부 갑론을박...공원·이면도로 '메뚜기 주차'에 단속 쉽지 않아

#1. 광주 A아파트에서는 최근 단지 내 주차장에 캠핑용 트레일러 주차를 허용할지를 놓고 입주주민들 사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아파트 자체 규약에서 정한 주차 가능 차량에는 캠핑용 차량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일부 입주주민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지속해서 주차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2.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캠핑용 차량 무단 주차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도심 공원과 인적이 뜸한 도로가에 장기 캠핑용 차량이 주차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선 사고 위험성도 있다며 강력 단속을 주문하는 민원이다.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은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차량이 옮겨 다녀 일반 차량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강력 단속이 쉽지 않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캠핑 열풍이 확산하면서 캠핑용 차량 증가와 함께 주차 시비 등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광주시에 등록된 캠핑카는 모두 2046대로 나타났다. 캠핑카가 1133대, 캠핑용 트레일러가 913대였다. 광주시에 등록된 캠핑 관련 차량은 매년 100대 안팎이 등록되다가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매년 신규 등록 대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9년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각각 68대, 66대(총 134대) 등록됐는데 2020년에는 각각 82, 134대(총 216대), 2021년에는 108, 150대(총 258대)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 149대가 신규 등록됐다.

광주시는 캠핑 관련 차량 등록 규모가 늘어난 이유로 일 못지않게 여가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한 데다, 코로나 유행을 타고 자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캠핑 관련 차량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덩달아 늘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의 다목적광장 주차장에 22일 오후 캠핑용 트레일러들이 연이어 주차돼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 있다. 시민 누구나 즐겨야 할 도심 공원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가 늘고 한적한 도로가에 일반 차량 보다 덩치가 큰 캠핑카 무단 주차가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다.

광주 5개 자치구 관계자는 "캠핑카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고 전하면서도 캠핑카 불법 주차 민원이 일반 차량과 함께 관리되고 있어 정확한 민원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캠핑카를 둘러싼 분쟁은 도심 아파트 곳곳에서도 발생한다.

가뜩이나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데 캠핑카까지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접수되면서 주민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입주주민 김모(50대)씨는 "밤 8시만 지나도 아파트에 차를 댈 곳이 없다"며 "출퇴근용 차량조차 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한 달에 가깝게 한두 번 쓸 레저용 차량까

지 아파트에 주차하면 민폐 아니냐"고 했다. 광산구 수완지구 한 아파트에서도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 2대를 놓고 주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 아파트 대부분이 전체 세대수를 겨우 웃도는 수준의 주차 공간을 보유한 상황인데, 세대별로 출퇴근용 차량만 2대를 보유한 가정도 적지 않고 여기에 캠핑카가 속속 주차장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민 불만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대별로 등록 차량이 1대일 때는 무료, 2대부터는 1만원, 3대부터는 10만원 이상의 무거운 주차요금을 매기는 식으로 주차 관련 규약 변경을 바꾸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캠핑족으로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려고 또는 아파트 주차요금이 부담돼 공원이나 이면도로로 캠핑카 주차 공간을 찾아 나서는 구조라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휴! 살았다



여수해경이 21일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에서 육지로 떠밀려 온 향고래를 밀어 바다로 돌려보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 앞바다 좌초 새끼 향고래 무사귀환

여수의 해변으로 떠밀려 온 울퉁퉁 짝 못하게 된 새끼 향고래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갔다.

2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 30분께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에서 해변에 떠밀려 온 향고래 1마리가 발견됐다.

향고래는 소실 '모비 닻'에 등장하는 고래로 잘 알려졌으며 성장하면 몸길이 17~21m, 몸무게 35~74 t 까지 자라는 대형 고래다.

이날 발견된 향고래는 몸길이가 약 2m에 불과한 새끼 고래였으며 발견 당시 꼬리와 배에

슬린 상처가 나 있었으나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해경과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고래의 숨구멍이 있는 머리 부분을 바다 쪽으로 밀어 바닷물에 잠기도록 도왔다. 숨을 쉴 수 있게 된 향고래는 기력을 되찾아 스스로 헤엄쳐 바다로 돌아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보호생물 등이 혼획되거나 좌초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며 "발견 즉시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이병노 담양군수 24일 영장실질심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병노(62)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이병노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들 세가지 혐의는 모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경찰은 지난달 28일 단행된 압수 수색 등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및 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직 단재장인 이 군수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수는 "일부 식사 자리에 찾아가 인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변호사비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명진고 학교 정상화 계획 보완하라”

광주교육청 26일까지 제출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명진고측에 학교 정상화 계획서 보완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광주시교육청과 명진고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명진고와 법인측에 7월 말까지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명진고 측은 8월 초 학생 진로·진학 계획 등을 담은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법인측에 입학 표명을 요구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제출 시한을 오는 26일까지 거듭 연장했다.

시교육청이 요구한 내용은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한 손규대 교사 해임 등에 따른 학내 문제 해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법인은 손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 교육청이 요구한 학교 정상화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명진고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가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토대로 의견을 집약해 교육감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며 "만약 금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는 제출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의견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인파에서는 명진고 측이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금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남녀공학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 소재 여고 사립학교인 명진고는 교사 보복 해임과 부정·비리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학교다. 2022학년도에는 정원 285명 중 51명만 채우는 등 심각한 신입생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메이썬 5·18 팸투어

광주 북구 23~24일

광주시 북구가 여행 전문가 등 초청해 5·18을 알린다.

북구는 광주시관광협회와 함께 23일부터 1박 2일간 여행 전문가와 서울시관광협회 임원 등 20여명을 초청해 '메이썬 5·18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팸투어는 북구의 5·18 사적지를 테마로 한 다크투어 코스 및 연계 관광지 소개를 통해 민주예향의 도시 광주를 적극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사적 1호인 전남대 정문 일원을 둘러보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오월 광주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을 소재로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한다.

이와 함께 무등산 자락의 충장사, 원효사, 환벽당 등 남도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둘러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